

주안예 News InChrist

주.안.예.교.회.뉴.스.레.터.



01
Jan. 2018
Vol.6 No.1

- 소그룹 리더훈련
- EM 겨울 수련회
- 교육부 학부모 모임
- 사역국 소식·칼럼

주안예교회 InChrist Community Church ph. 818.363.5887 | 문서국 e-mail: icccnews123@gmail.com | web: in-christcc.org



새해 첫 주일예배 ICkidz 어린이들의 찬양이 밝고 예쁘다. (사진: 남성우 기자)

“엘로힘 하나님, 나, 그리고 예배자”

■ **신년감사예배** “예배자” 라는 주제를 앞세우며 주안예교회의 2018년 은 시작되었다. 새해 들어서 첫번째 주일인 1월 7일 벨리채플과 새롭게 이전한 Monterey Park 채플에서는 각각 한차례씩의 신년 감사예배가 드려졌다.

어린이들로부터 학생들 그리고 청년들에 이어서 교육부 전도사님의 특별순서와 성가대의 찬양 까지 양쪽 채플은 같은순서로 예배가 진행되었으며 예배시간의 조절로 인해서 담임목사님께서는 “엘로힘” 이라는 신년 메시지를 두 채플에서 전해 주셨다. 말씀가운데서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 을 가리킬 때 불리우는 “바라 엘로힘” 을 강조하시면서 2018년 한해는 주안예교회의 성도들 모두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엘로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자” 의 삶을 실천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 하셨다. | 오희경 기자 |



■ 소그룹 리더훈련

‘말씀을 삶으로’ 목장모임 준비, 또 준비

지난해 주안예교회는 쉽지않은 많은 상황에서 새해를 맞았습니다. 내외부적으로 극복해야 될 주요한 일들이 산적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 교인들이 눈물어린 기도와 노력과 인내를 하였고 하나님께서 이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희망찬 2018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각오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을 맞아 우리가 시행할 일중 금년부터 목장을 중심으로 교인들의 활동이 시작되는 데 이 목장 모임을 위한 소그룹 리더 훈련을 한 달 가까이 거의 매주 MP Chapel 에서 또는 Valley Chapel에서 진행해 왔습니다. 소그룹 리더 훈련에서 최혁 목사님께서 지도하신 말씀 중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을 발췌하여 소개 합니다.

* 지금까지 신자들이 많은 말씀을 들었으나 90 % 이상의 교인들이 그대로 살려는 노력을 못하였다. * 우리는 말씀으로 삶을 바꾸려 노력해야하고 주일에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한주간을 살려고 힘써야 한다. * 우리의 새로운 삶의 모습은 심령이 변하고 마음이 변해야지 system 하나 바꾼다고 변하지 않는다. *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능동적 주관적으



로 해야 한다. 사도요한의 삶이 한 본보기라 할 수 있다. 요한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돌보아 드리는 데 청장년 시절을 다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수님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기를 희생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았던 것이다.

* 단 하루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 할 수 없고 주 앞에 서는 날 주님은 다 셈 하실 것이다. * 하늘을 맛보고 사는 사람이 되자 우

리는 적음 해야 한다.

* 말씀으로 먹고 되새김질 하자. 그 자리에 오기까지 싸우고 상처를 가지고 목장 모임에 나오자. 포기하고 싶고 쉬고 싶을 때 쓴다면 하나님이 우릴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어 드릴 수 없기 때문이다.

목장 모임은 금년 2월부터 시작되며 2부 예배 후 점심을 마친 후에 목장 별로 모이게 되며 목자 또는 목자장이 인도하게 됩니다.

| 나형철 기자 |

■ 교육부 모임

교회와 가정이 함께 하나님 자녀 양육

지난1월 21일에는 키즈에서 유스에 이르기까지 교육부 전체 스텝과 학부모님들이 함께하는 상반기(새해) 학부모 미팅이 있었다.

학부모 미팅은 상반기와 하반기 2번으로 계획되어 있고, 이번 모임은 2018년 새해 첫 모임으로서 채플의 연합과 새로이 시작된 관계, 교육부의 사역의 방향등을 공유하며 식사교제를 나누었던 시간이었다. 모두가 함께 하는 자리를 자주 갖기는 어려워 구체적인 내용들의 공유, 교체들도 어렵지만 모두가 자녀세대 신앙교육을 향한 한 마음을 품고 서로 한 팀이라는 마음을 나누는 자리이길 바라며 앞으로 교육부와 부모님 간에 그룹으로 개인으로 교체와 나눔이 지속될 좋은 계기가 되었다.

학부모 미팅 동안에는, 교육부의 바램이 우리 학생들이 교회에 정을 붙이고 마음을 두어 교회를 사랑하는 가운데 흠뻑치로서 즐거운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에 있으며 그것은 예배교육과 건강한 관계형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내용이 나누어졌다. 이런 목적을 위하여 학생들의 전반적 안전이 절



대적으로 필요하고 건물과 공간사용, in-out의 상황들을 함께 파악하고, 학생들의 행동반경을 고려한 안전이슈에 대해 교사들과 부모님들이 함께 관심을 가져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에 행복감을 느끼는 가운데 책임감을 가지고 스스로 관리할 줄 아는 마음도 배우는 배움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었다.

담임목사님께서도 자녀들을 맡길 목자,사

역자들에 대해 섬세한 기대를 가지시고 앞으로의 신앙교육의 꿈을 교회공동체가 함께 꾸어갈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과 더불어 교육부를 향한 깊은 마음을 보여주셨다. 부모님들의 좋은 마음,협력하는 마음, 함께 해주신 마음에 참 감사드리며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 학부모님들이 말씀과 예배 안에서 함께 걸으며 많은 성장이 이루어지는 한 해를 소망하며 기대한다. | 김명자 기자 |

■ 문서국 모임

성도들이 기다리는 알찬 ‘주안에신문’ 다짐

주안에교회 문서국은 지난 1월 18일 2018년 새해의 첫 모임을 가졌다. 지난 2년동안 주안에교회 문서국 국장으로 헌신적으로 성도들을 섬긴 이광영 안수집사에 이어 2018년 새국장으로 임명받은 오희경 권사와 김윤영 간사, 박현동 목사를 포함한 12명의 문서국팀이 참석하여 오랜만에 얼굴을 마주보고 이야기하며 은혜를 나누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특별히 어떤 기사로 주안에교회 성도님들의 눈을 사로잡을까하며 진지하게 고민하는 모습들에서는 문서국팀의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따뜻한 마음과 사랑이 묻어났고 마지막 조용대 장로의 신문만들기 강의는 문서국팀에 더욱 힘을 실어주었다.

새해엔 더욱 새롭고 즐거운 소식으로 주안에교회 성도께 다가가 섬기겠다는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며 모임을 마쳤다.



문서국에서는 함께 기자로 주안에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다. 문의: 오희경 국장(213-820-2298) | 박창신 기자 |

■ 음향 세미나

교회음향 이론과 실기 체계적으로 익혀

그저 지식을 전달하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예배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음향이 차지하는 비중을 이론과 실기를 통하여서 본인이 아는만큼 나누려는 목적의 아주 특별한 세미나가 1월 24일과 25일 양일에 걸쳐서 MP 채플에서 열렸다.

강사로 섬겨주신 박경배 집사님은, 전 한국 사랑의교회 음향감독을 맡아서 봉사 하셨으며, 현재는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 외래교수로 활동중인 음향의 전문가 이시다.

이번 세미나에는, 각 교회에서 음향으로 섬기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학교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계시는 분까지 다양하게 참가를 해주셨다. “교회음향을 위한 음향시스템 입문”을 비롯한 여러권의 저서도 집필하신 박경배



집사님은 이번 세미나를 통하여서 무엇보다도 예배적 음향의 volume 과 balance 를 조절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특별히 방송실 봉사는 이성에 가까운 섬기는 마음을 품는 섬김이어야함을 강조하시면서, 선교를 위해서 시작한 일이니만큼 앞으로도 복음이 필요한 곳에는 어디든 찾아가시겠다는 포부를 살짝 귀뜸해 주셨다. | 오희경 기자 |



삶을 나누고 기도의 줄을 이어주는



박창신 권사(밸리) 새해 경희대 남가주 동문회 회장을 맡아 동분서주... 또 밸리채플 의료국 신년모임을 자택에서 갖고 성도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팀원들이 더욱 정성스럽게 봉사하기로 다짐하기도...



이재인, 이화선 집사(밸리) 1월 6일 모처럼 부부가 함께 등산길, 팜데일에 위치한 데블스체어(DEVIL'S CHAIR) 왕복 7마일 힘들어하는 부인을 끌어주고 밀어주면서 끝내 정상에 올랐다. 올해는 더욱 말씀을 사모하고 건강을 위해 운동도 열심히 하겠다고...



김신실 권사(밸리) 2018년 새해 첫 나들이를 남편과 함께 하와이로 떠나셨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별히 아름다운 그곳에서 또 한해 멋지게 계획하시고, 더욱 돈독한 부부애를 다짐하시는 귀한 추억의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재미난 이야기 보파리를 기대한다.



박선우 집사(밸리) 그동안 플러튼 채플에서 성가대 지휘자로 수고해 주시던 박선우 집사님께서 이번달부터는 밸리 채플의 성가대로 옮겨서 섬겨주시게 되었다. 지휘하시는 뒷모습이 베토벤과 닮고 싶은 본인의 소망(?) 때문에 박토벤이라는 별명을 마다하지 않는 박선우 집사님의 멋진 활약을 기대한다.

■ 새해 나의 기도



안정순 권사(밸리) 먼저 더미에서도, 거름 더미에서도 일으키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뢰하고, 의지하오면서 2017년도의 막혀있던 체증을 환란과 핍박 속에서도 풀어주셔서 저희들은 은혜와 감사를 드높이 영광을 올립니다. 2018 무술년엔 받아오는 새 아침에 새성전으로(여호와 아래) 준비하셔서 이제는 머무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는 교회 되게 하여주시길 믿습니다. 그러기엔 우린 더욱 "순종"할 수 있게 늘 기도합니다.



파사디나 아이스링크장 앞에서 단체샷을 찍고 있는 청년부리더들



김윤기 성도(MP) 김윤기 성도는 MP채플 한어청년부에 속해 있고, 새가족팀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미군을 제대한지 얼마 안되었고 공부를 하려고 준비중입니다. 요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고, 더 알기 위해 성경도 찾아보고 읽고 있습니다. 주일예배 뿐만 아니라 주중예배와 새벽예배에도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잠시 방문 중입니다.



이에스터 권사(MP) 아프리카 선교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



이른 아침부터 신년예배를 준비하는 밸리채플 미디어팀

주안에게족들의 만남과 소통의 장

최진선 집사(MP) 브니엘 국장을 맡아 오래전 취미로 배우기 시작한 빵 만들기가 이렇게 사용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선교와 구제를 하는 마음으로 모든 빵과 커피를 건강식으로 만들고 있으며 권사님, 집사님들과 함께 즐겁게 섬기고 있다.
선교하는 마음으로 함께 섬기길 원하시는 분들은 브니엘 카페로 오시길 바랍니다!



■ 미니 간증/ 윤세희 집사(벨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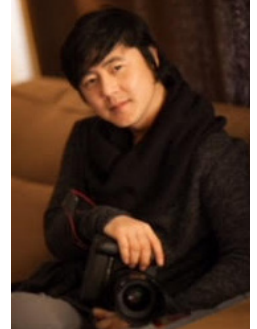
주안예교회가 시작하면서 섬겨왔던 교육부 봉사를 뒤로한채 2018년은 하나님은 제게 새로운 사역국에서의 봉사를 허락하셨습니다. 찬양듣기를 좋아하고 찬양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큰 위로와 기쁨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기에 찬양팀에 조인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 새로운 직장에서 일을 시작하지 얼마되지 않아 맞게 된 신년특별새벽기도에서 찬양팀으로 참여하는 일은 제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차피 시작하기로 한 것이니 5일만 참고 해보자는 온전하지 못한 순종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새벽예배에서 너무나도 큰 은혜를 주셔서 2018년 참 예배자의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바꿔주셨습니다.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고 기대할 수 있는 마음으로 찬양팀에 설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경빈 집사(MP) 엠피채플로 이사하면서 2년전 함께하던 찬양팀들도 만나고 다시 함께할 수 있어서 설레고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만이 영광받으시는 찬양이 되길 소망하고 부족한 소리지만 주님께 드려지는 이찬양을 통해 많은 성도님들이 주님을 만나고 회복되는 찬양이 드려지길 소망해봅니다~^^

■ 숨은 일꾼/ 김다슬 집사(벨리)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직업으로 택해서 일도 하면서, 스스로가 아주 행복하다고 생각하며 교회봉사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는, 사진작가 김다슬 집사님을 소개 합니다. 교회의 아주 작은 행사부터 큰 이벤트까지 소리없이 소중한 한컷의 기회를 찾아 움직이시는 집사님이시지요. 살아있는 사진, 생동감 있는 사진



교회 역사 정성 다해 '한컷'

을 보면 가슴이 벅차 오르고 너무 좋아서 그걸 찍다보니 포토그래퍼가 됐다고 하시네요. 주로 웨딩사진, 가족사진, 제품사진, 졸업사진 등은 전문가답게 기막히게 촬영하신다고 자신감을 내보이시며 특별히 주안예교회 교인의 만삭사진은 무료로 촬영할 계획이라고 하시니 임산부들은 꼭 기억하셔서 엄마와 아가에게 아주 소중한 순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방송국 성우로도 활동하고 계시며, 교회에서 필요할때 언제든 목소리 봉사도 준비가 되었다고 하시는 김다슬 집사님께 앞으로의 포부를 여쭙보니, 사진선교라고 주저할 없이 말씀하십니다. 오지에 있는 선교지와 선교의 현장을 사진에 담아 널리 알리는데 자신의 재능과 열정을 바치고 싶다고... 사진에 관한 모든 것은 카톡아이디 Scott Kim Studio(213-810-4000) 로 물어보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린다고 하십니다.

■ 2세대 목소리

Justin Ma(MP) My experience in the move to MP chapel was a good time of sharing and fellowship. I was a little bit sad to leave L.A. Chapel because it was a place where I felt like my family was, but the time of moving included something special. There was a time of sharing and bonding while we moved all the boxes and furniture. I used that time to get closer to some of the jipsanims who were at L.A. Chapel. I got to lift a lot of stuff, and I took it as God giving me a workout session without being at the gym during the Christmas break. Helping out in the move was a great experience because it became a time to talk and hang out with the other jipsanims at church. I am looking forward to the fellowship at MP Chap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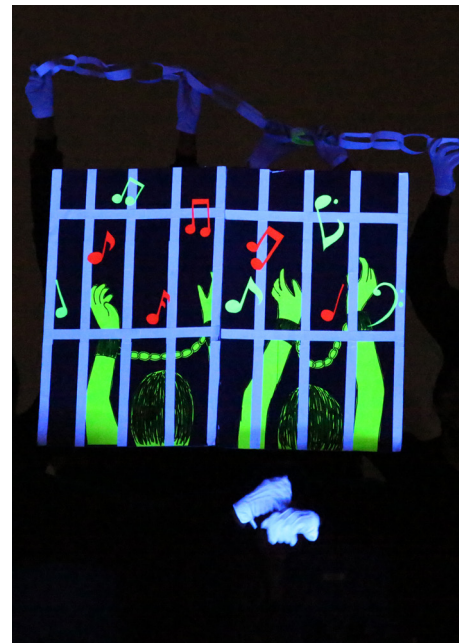


벨리에서, MP채플에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 EM 겨울수련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말씀과 기도로 한마음

신명기 11:31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사...

지난 1월 12일 오후부터 1월 14일까지 2박 3일간, Alpine Meadows Conference Center에서 “Crossing” (신명기 11:31a)이란 주제로 EM 겨울수련회가 진행되었다.

총 18명의 EM 성도가 참여한 이번 수련회는 3명(이성우, 이요셉, 김유진)의 교역자, 밸리 채플과 MP채플 EM 국장인 권문상 집사와 Robert Lee 집사 내외, 그리고 박은래 장로가 봉사자로 함께 참여하였다.

수련회 장소에 도착한 이 후 드렸던 12일 저녁 첫 예배에서는 이성우 전도사가 “God’s Finger Print”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가운데 어떻게 동행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행하셨는지 돌아보며 주님의 흔적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었다.

둘째날, 13일 이른 아침, 일 때문에 첫날부터 함께하지 못했던 성도들이 함께하였다. 추운 날씨 가운데에도 모두 부둥켜안듯 예배당에 동그랗게 모여 시편 34편을 묵상하며 Morning QT시간으로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였다.

생명의 말씀에 이어 수련회 장소에서 공급한 육의 음식을 먹는 시간들 또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나누며 하나되어 교체하는 시간이었다. 곧 이어 드린 두번째 예배에서 “Loving God”라는 주제로 이성우 전도사가 설교를 전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 진정한 삶의 목적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돌아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더 부어주시기를 한마음으로 기도했다.

추운 날씨였지만 산 너머로 비추이는 파스한 햇살을 안고, 산 중심 계곡 줄기를 따라 하이킹에도 임했다. 이어진 자유시간 또한 서로 다른 세대를 뛰어넘어 사랑으로 하나되는 시간이었다.

그날 오후, 마치 미리 약속이라도 한 듯 만나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모두 설레이는 마음으로 준비했던 저녁 예배에는 “Crossing”이라는 제목으로 이요셉 전도사가 말씀을 전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홍해”와 같은 역사하심으로 늘 동행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제는 성숙한 믿음으로 거듭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는 믿음으로 먼저 발을 내딛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이었다.

예배 이후, 낮부터 Robert Lee 집사 내외, 권문상 집사 내외, 박은래 장로가 온 정성과 마음을 다해 준비한 음식과 함께 캠프파이어가 이어졌다. 정성어린 섬김을 통해 먹었던 음식은 추운 겨울 날씨도 감싸 안을만큼 따뜻했다. 뜨겁게 타오르는 캠프파이어를 중심으로 모두가 함께 모여 겨울수련회 가운데 함께하여주시고, 역사하시고, 만나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었다.

주일 아침 일찍 눈길을 헤치며 하나, 둘 MP 채플로 향했다. MP 채플 성도들과 EM 부장 집사인 김수연 집사가 준비한 아침으로 든든히 속을 채운 후, 9:30 EM 예배를 통해 두 채플이 하나되어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림으로 수련회를 마쳤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도심과 세상을 떠나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수련회를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만나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더욱더 하나님과, 그리고 서로간에 하나됨을 체험한 EM 성도들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앞에서 삶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기도한다. | 이예스더 사모 |





■ 수련회 간증

Remember Today

Attending the EM Retreat was a time not only spent in fellowship and getting closer to other people, but also a time to find God again.



Gloria Yi
(Valley EM)

Before the retreat, I felt at a spiritual low; I went through some rough moments with my family and found myself frustrated with church. During the retreat however, I felt God speaking to me again or rather, I was listening to him and letting him in again.

There were a few choice words that struck my heart making me feel more rooted instead of drifting, 'Remember Today'. Meaning that God should be remembered every single day even for a small moment because without remembering, there is no love. Those words reminded me that then, I wasn't remembering and I wasn't feeling love. I had pushed God away, rather than becoming closer to him as many people advised. With those words I felt relieved, because then even a small act as remembering can be such a big action towards God, that I could rely on that and slowly begin to renew myself in my relationship with God.

After the retreat I felt more reassured in my faith, making a promise that I would take the effort, however hard or easy it may be to do in the days to come, to remember God and my love for him, through diligent prayer and reflection each day. That despite whatever I'm going through now it is only a trial for my faith and my heart to be strong. I'm thankful that this EM Retreat has blessed me and encouraged me in reaffirming my faith and reminding me of God's love once more.

■ 새가족 소개(MP)

'우리교회' 를 찾았어요

저희 가족이 미국에 온지 2년 남짓 되면서 차츰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지만, 몸담아야 할 교회를 찾지 못해서 갈팡질팡 하고 있을 때 제가 늘 다니는 길목에 “주안예교회”가 세워졌음을 알고 12/31/17에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후 목사님과 의 만남을 통해 진정한 예배의 소중함과, 또한 예배를 위한 철저한 준비과정의 중요성을 들으면서 목사님의 하나님을 향한 자세와 열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기도로 준비하고 성도들의 영성 훈련과 성장에 초점을 두시는 모습이, 많은 부분이 인본주의에 물들어 흔들리고 있는 여느 미국 한인 교회들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더불어 항상 같은 미소와 반가움으로 맞아주시고 잘 이끌어 주시는 권사님, 집사님들 덕분에 교회적응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세 아이의 영성 교육도 ICKidz, ICY 모두 성령충만한 교사 및 사역자들로 구성되어 제가 우려하고 채워주지 못한 부분들을 충분히 채워 주실 수 있을 것 같아 기쁩니다. 교회 선택 때문에 방황했던 저희 가족을 위해 “주안예교회”를 집근처로 세우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성이 집사 (MP채플)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

저희 가정은 미국에 온 지 3년 정도 되었습니다. 직장 문제와 개인적 신앙의 문제들로 오랜기간 고민하던 중 하나님의 인도로 '주안예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섬기고 계신 지인의 소개도 있었고요.



김현태, 김윤정C 집사 (MP채플)

■ 주차국(MP)

"성도님들을 기분 좋게, 안전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계명으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두 계명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실천해야 하는 사명입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모인 주안예교회 MP채플의 용사들이 있습니다. 주차관리국(국장 배석원 장로)입니다. 주일날 1, 2부 예배 때와 금요일 저녁 영성예배 때 이들은 누구보다도 일찍 교회로 달려옵니다. 오렌지색 주차요원의 조끼를 입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안에 교회의 성도들의 안전한 길잡이가 되게 해주세요. 교회에 오는 길도 지켜 주시고, 파킹



(왼쪽부터) 배석원 국장, 이진혁 집사, 김형태 집사

장에서도 아무 사고 없게 도와주세요.” 그리고는 한 사람씩 자신이 맡은 자리에 가서 안내봉을 들고 성도들을 안내합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나침반입니다. 제가 길 잃어 방황하던 때에 성경 말씀은 제게 진리의 길을 안내해 주셨습니다. 어둡고 캄캄한 시절, 하나님의 말씀은 제 인생의 길잡이였습니다. 그 말씀 덕분에 지금은 직장도, 가정도, 그리고 제 개인 생활도 모두 안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진 빚을 조금이라도 갚고자 이렇게 주차봉을 들었습니다.” “저는 주안에 교회를 너무 사랑합니다. 무엇보다도 담임 목

사님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습니다. 어두워져 가는 이 시대를 밝히고 안내하는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듣기 위해 오시는 교우들에게 제 안내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인터뷰를 청하는 제게 주차봉사 요원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이름이 오르는 것을 원치 않아 할 수 없이 이렇게 무명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주안예교회에서 받은 사랑에 비하면 이런 봉사는

봉사라고도 할 수 없지요. 그래도 저희는 교우들에게 얼굴이라도 보이잖아요. 봉사하는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주안에 교회의 진짜 봉사꾼들은 얼굴 없이, 이름도 없이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비하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왜 주차관리국을 취재하는

냐는 항의(?)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교회로 들어오는 길목에서부터, 파킹장에서 안내하는 요원까지 모두 90도로 절하며 교우들을 안내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송구스럽기까지 합니다. 추위와 더위, 뜨거운 남가주의 태양빛까지 아랑곳하지 않고 교우들을 위해 봉사하시는 것도 감사한데, 절까지 하시니 말입니다. 당신들의 사랑 나눔에 주안에 교회는 훈훈하고 따뜻한 겨울이, 시원하고 땀 흘린 여름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조성운 기자 |

1/19 금요일예배와 1/21 주일예배를 드렸는데요. 한마디로 성령충만한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찬양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왜 중요한지 확실히 깨달을 수 있었던 귀한 말씀의 시간이었습니다. 2018년 을 한해 저희 가정 뿐 아니라 모든 주안예교회 지체들과 그 가정, 직장, 사업장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시길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건강칼럼

면역성을 높여주는 7가지 방법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온전히 너희로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데살로니가전서 5:23

우리에게는 영적 건강, 정서적 건강이 있으며, 육체적 건강이 있다. 육체적 건강차원에서, ‘건강관리’에는 간단히 말해, 두가지 접근방식이 있다. 하나는 질병에 대해 약물과 수술로 <위기학>을 다루는 증세의학이고, 또 하나는 병의 원인과 예방, 생활양식의 <웰빙학>을 다루는 건강의학이다. 다른 시각의 건강패러다임이라 할 수 있다. 건강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면, 즉 사고를 전환시키면, 건강을 위한 새로운 세계가 보이게 된다.

여러분은 그동안 건강에 대해 어떠한 패러다임을 가지고 건강관리를 해왔는가? 먼저, 독감에 대한 구패러다임과 신패러다임을 비교해보자. “독감으로 몸이 쇠약해졌다.”라는 말을 하거나, 들어 보았을 것이다. 이러한 표현을 구패러다임이라고 한다면, 뉴패러다임의 표현은 반대이다. “독감이 당신의 몸을 쇠약하게 한것이 아니다.” 언뜻 들으면 좀 이상하게 들릴 것이다. 엄연히 멀쩡하던 몸이 독감에 걸렸으니까, 당연히 독감때문에 몸이 쇠약해졌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듣고, 배워왔고, 또한 그렇게 체험까지 해오지 않았는가. 그러나, 뉴패러다임은 독감이 당신의 몸을 쇠약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몸이 쇠약해졌고,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독감에 걸린 것이다. 다시 말해서, 당뇨병이나 암이 당신의 몸을 쇠약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몸이 쇠약해져왔고,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당뇨병이나 암이 생긴 것이다. 한마디로, 질병이 당신의 몸을 쇠약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몸이 쇠약해지고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질병이 온 것이다. 즉 먼저 몸의 기능과 조화와 균형과 질서가 깨지고, 면역기능도 떨어졌으며, 몸이 쇠약해졌기 때문에 결국엔 독감, 당뇨병, 암등의 질병이 왔다는 것이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건강에 대한



임훈 선교사 (척추신경전문)

또 다른 뉴패러다임으로 건강을 위한 새로운 깨달음을 가져보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치유력이라는 것을 주셨다. 우리의 몸에는 놀라운 치유력과 면역력이 있다. 면역성 하면 백혈구, 좀 더 구체적으로 티림과구라는 세포가 있는

데, 독감 바이러스나 감염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 힘까지도 있다. 시중에는 감기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 약은 하나도 없다. 우리 몸의 면역성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7가지 방법이 있다. 육체적 건강과 체력을 위해서는, 혈액순환 (1.유산소 운동, 2.물, 3.영양), 신경흐름을 보호하는 4.척추관리, 5.수면과 휴식 그리고, 정신적/정서적 건강을 위해서는 6.스트레스와 관계를 관리할 줄 알아야 되겠고, 7.영적 건강과 영력을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다.

우리의 몸은 다이내믹하게 매일 변하고 있다. 오늘 아침에 먹은 조반은 밤이 되면 심장세포가 되고, 오늘 밤에 먹은 음식이 내일 아침이면 눈의 세포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고대 그리이스의 격언을 보면, “같은 강물에 두 번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 있다. 즉, 강이란 흐르는 물로 인해 오늘, 내일 똑같을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이다. 피부세포는 2주에서 4주 만에 새로운 세포로 대체되고, 심장세포는 매 3개월마다 대체된다. 하물며, 우리 혈액 안의 적혈구는 120일을 건강하게 살다가 죽고, 새로운 적혈구로 대체된다. 적혈구의 사명을 통해 한가지 배워보자: “나는 행복하게 살다가, 건강하게 죽으리라.”

감기가 만연한 요즘엔 면역성을 높이고, 새로운 패러다임에 근접한 앞에서 제시한 일곱 가지 건강법칙을 잘 준수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강으로 영과 혼과 육이 흠없이 보존되시기를 바란다.

■ 새가족 소개(벨리)

“마음을 바꾸어주신 하나님”



Sun Kang 성도 (벨리채플)

아버지... 내가 즐겨부르는 말이 아니었다.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였지만, 집안 관계 안에서 자주 불리지 않았던 말.. 다시 부르는.. 이름, 아버지... 간절함에 듣는 아버지의 Message를 최혁 목사님을 통해 접했습니다. 믿게 하시는 주님, 주안예교회로 불러주시고 저의 아버지가 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지난 11월 3일 사랑하는 엄마가 Stroke으로 누우신 후 다시 12월 12일 두번째 Stroke으로 의식없이 주무시고 계신 엄마를 통해 가보지 못했던 마음의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분주함으로 미뤄두었던 길로 이끄시면서, 말씀해 주시고, 만남을 허락하셔서 평안가운데 주님의 뜻을 주님의 때에 기다립니다.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주님의 계획에 저의 사랑하는 엄마와 나, 오빠 가족.. 그리고 모든 주변의 관계를 허락하시는 것을 알고, 엄마는 병상에 있는 가여운 사람이 아니라 부러워해야할 대상이라는... 마음의 변화를 주신 주님께 감사 또 감사합니다.

“사모하던 주안예교회”



이광선 권사 (벨리채플)

저는 지금 LA로 이사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타주에서 살면서도 주안예교회를 사모했습니다. 저는 LA를 방문할 때마다 주안예교회의 예배와 CD를 가지고 가서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모임을 갖고 CD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위로와 힘을 받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충만한 주안예교회로 보내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안예교회를 사랑하며 복음의 동역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All-knowing Lord, you see what is in my heart. All-powerful Lord, I don't have the power to accomplish what needs to be done, so I spread out my requests before you. All-wise Lord, I know you hear and will act-but I know also I must wait on your wise timing, and so I will. Amen.” - 팀 켈러의 시편 5편 묵상 중에서

■ 추천도서
[이웃의 가난은 나의 수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돌봄'

이 책의 저자인 피에르 신부는 현존 프랑스 인물 중 가장 존경 받는 사람입니다. 1949년 엠마우스(엠마오) 공동체를 세우고 빈곤과 소외를 목표로 싸워온 인물입니다. 이 단체는 현재 44개국에 350여 개 단체를 둔 세계적 빈민구호단체로 활동 중입니다.

피에르는 엠마오로 향하는 길에서 만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깊이 생각하며, 감동은 사랑이신 “하나님과 함께 있다” 즉 그리스어 en(in)-theos(God) 이 바로 엠마우스(엠마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상에서 태어나 늘 환상을 만들어 내지만, 그 환상에서 깨어날 때 비로소 참다운 삶이 시작된다고 지적합니다. 즉 사랑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해 환상에서 깨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에르가 남미를 향하는 배를 타고 갈 때, 배에 큰 문제가 생겨 승객들 모두가 바다로 뛰어들게 되었는데, 그때의 심경

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다로 뛰어든 순간, 모든 사람들은 혼자 있지 않으려는 본능적 욕구가 일어났고 그리하여 삼삼 오오 짝을 이루어 바다에 떠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고통의 순간 함께 모여있으려는 갈망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구조가 된 후에 피에르에게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 때 무슨 생각을 했나요? “하나님께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한 손을 내밀어 가난한 이웃을 잡을 때, 다른 한 손은 하나님을 잡고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다른 한



손을 잡아주셨다는 표현이라고 추측됩니다.

지금도 세계 60억 인구 중 절반에 가까운 26억 명은 하루 2달러 이하로 힘들게 살아갑니다. 특히 10억 명의 사람들은 하루 1달러도 되지 않은 돈으로 연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달러를 벌기 위해 중노동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작년 한해 우리 주안예교회의 표어가 “돌봄”이었는데, 우리는 무엇을 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올 해 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웃을 돌봄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많은 영혼들을 돌보고 구제함으로써,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영혼 살리기”에 이 책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책을 읽어보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 이광영 기자 |



예배시간 및 교회 위치 안내

- 주일 예배**
밸리채플/ 1부 오전 8:00, 2부 10:00
MP채플/ 1부 오전 9:30, 2부 11:30
- 영성 집회**
수요영성집회/ 저녁 7:45 밸리채플
금요영성집회/ 저녁 7:45 MP채플
- 새벽 예배**
밸리채플/ 새벽 5:30(월-금), 6:00(토)
MP채플/ 새벽 5:30(월-금), 6:00(토)

- 교육부 예배시간(교회학교)**
밸리채플/ 주일 오전 10:00, 수 저녁 7:45
MP채플/ 주일 오전 11:30, 금 저녁 7:45
- ICY중고등부&영어청년부**
밸리채플/ 주일 오전 10:00, MP채플/ 주일 오전 11:30
- Coram Deo(한어청년부)**
밸리채플/ 주일 오전 10:00, MP채플/ 주일 오전 11:30
- 밸리채플 Valley Chapel**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 MP채플 MP Chapel**
588 Atlas Ave, Monterey Park, CA 91755

“주안에” 2018년
2월호 원고 모집

‘주안에’ 는 교우 모두가 참여하여 만드는 우리교회 뉴스레터입니다. 교구, 구역, 사역팀 소식을 비롯, 간증과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누고 싶은 글을 많이 보내주세요.

iccnews123@gmail.com

발행처: 주안예교회 문서사역국

문서사역국 명단: 오희경(국장), 김신실, 나형철, 박창신, 박희정, 오윤선, 이광영, 이애스더, 이지현, 조성은, 조용대, 채은영(기자)

안동윤, 양영, 브라이언 조, 남성우, 정인섭(사진) | 편집디자인: 김윤영